# 洪吉童傳 硏究

## —作家와 作品의 距離—

李 昌 祐

目 次

Ⅰ. 머리말
Ⅱ. 史料에 나타난 許筠의 모습
1. 否定的 모습
2. 肯定的 모습
Ⅲ. 〈洪吉童傳〉 및 기타 作品에 나타난 두 개의 肖像
Ⅳ. 許筠과 洪吉童의 距離
Ⅴ. 結 語

## Ⅰ. 머 리 말

이제까지 발표된 許筠과 〈洪吉童傳〉에 대한 연구는 단행본을 비롯하여 논문만 해도 150여편에 달한다. 그것은 〈洪吉童傳〉이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최초의 국문소설이며, 당대의 어떤 작품보다도 혁명적인 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왕성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의 작품에 대한 평가

는 매우 상반된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일부에서는 그를 '志士'나 '革命家'로 찬양하는가 하면[1], 다른 쪽에서는 '輕飄無檢한 挾雜輩'로 평가하여[2] 〈洪吉童傳〉을 僞作으로 보는 견해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논의는 다분히 성급한 감이 없지 않다. 〈洪吉童傳〉을 폄하하거나 위작일지도 모른다는 견해는 작가의 생애로써 작품의 가치를 측정한 결과며, 혁명지사로 미화시키려는 태도는 작품에서 작가를 추론한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 작가의 전기를 고찰하는 것은 그의 윤리의식을 평가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하면 新批評家들이 말하는 소위 '意圖論的 誤謬(The Intentional Fallacy)'를 범하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허균과 그의 작품에 대한 연구의 방향을 바르게 유도하기 위하여 〈朝鮮王朝實錄〉, 〈燃藜室記述〉, 〈於于野談〉, 〈大東野乘〉, 〈朝野輯要〉 등의 사료에 나타난 그의 생애를 분석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肖像과 〈洪吉童傳〉 및 그의 문집 〈惺所覆瓿藁〉에 나와 있는 여러 논설, 그리고 그가 남긴 5편의 '傳' 등에서 얻어지는 肖像을 비교하여 어떻게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밝히고, 그것이 왜 그렇게 작품 속에 굴절되어 표현되었는가를 규명하려고 한다. 따라서, 본고는 M. H. Abrams의 좌표상 작품은 작가 체험의 투영이라는[3] 表現論的 觀點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연구는 許筠과 〈洪吉童傳〉에 대한 바른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을

---

1) 金台俊, 〈增補朝鮮小說史〉, 學藝社, 1939. p. 86.
趙潤濟, 〈韓國文學史〉, 東國文化社, 1949. pp. 246~247.
鄭鉉東, 〈洪吉童傳研究〉, 文豪社, 1961. p. 321.
車熔柱, 〈許筠論再攷〉, 아세아연구 48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72.
李秉岐, 〈國文學全史〉, 新丘文化社, 1957. pp. 134~135. 등 참조.

2) 李能雨, 〈許筠論〉, 숙명여대 논문집 5집, 1965.
金鎭世, 〈許筠研究〉, 國文學研究 2輯, 서울대 국문학연구회, 1965. 등 참조.

3) W. H Abrams, Orientation of Critical Theories, The Mirror and The Lamp, Oxford University Press, 1953.
Early Essays by John Stuart Mill, ed, J. W. M, Gibbs, London, 1897, p. 208.

뿐만 아니라, 문학사 속에서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는 여타의 작가들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4]

## Ⅱ. 史料에 나타난 許筠의 모습

許筠의 인간적 초상화는 〈朝鮮王朝實錄〉, 〈燃藜室記述〉, 〈於于野談〉, 〈大東野乘〉, 〈朝野輯要〉 등 여러 곳에 나타난다. 이런 사료에 나타난 그의 모습을 연대별로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선조 2년( 1세) : 서울 건천동에서 草堂 許曄의 3남 3녀 중 막내로 출생.
선조 13년(12세) : 부친 許曄 사망.
선조 18년(17세) : 金大涉의 2녀와 결혼.
선조 21년(20세) : 중형 荷谷 許筬 사망.
선조 22년(21세) : 누이 許蘭雪軒 사망.
선조 25년(24세) : 임진왜란으로 피란 중 부인 김씨, 첫아들 사망.
선조 27년(26세) : 정시 을과 급제, 승문원 사관.
선조 30년(29세) : 중시 장원 급제, 金孝元의 딸과 재혼.
선조 31년(30세) : 병조좌랑.
선조 32년(31세) : 경창을 거느리고 무뢰배와 사귀었다고 황해도 도사 파직.
선조 34년(33세) : 모부인 김씨 별세.
선조 36년(35세) : 형조정랑, 사복사정, 원접사 李廷龜의 종사관으로 西行.
선조 38년(37세) : 배불했다는 이유로 수안군수 파직. 명나라의 원접사 朱之蕃을 접대.
선조 39년(38세) : 원접사 柳根의 종사관으로 서행.
선조 40년(39세) : 참선배불했다는 이유로 사론의 탄핵을 받아 삼척 부사 파직.

4) 가령, 고려 조의 정서나 정지상, 현대문학에서의 친일이나 월북 작가들의 연구에도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선조 41년(40세) : 성행이 경표무검하다는 이유로 공주목사에서 파직되어 함산으로 귀양.

광해 원년(41세) : 첨지 중추부사, 형조참의, 원접사 李尙毅의 종사관으로 서행.

광해 2년(42세) : 전시대독관으로서 조카와 사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켰다는 이유로 파직.

광해 3년(43세) : 함열로 귀양가서 〈惺所覆瓿藁〉를 완성.

광해 4년(44세) : 맏형 許筬 별세, 왜정진주사, 태인으로 유배.

광해 5년(45세) : 七庶孽 史獄事件을 일으킴. 李爾瞻의 도움으로 예조참의가 됨.

광해 6년(46세) : 호조참의, 형조정랑, 천추사로 서행.

광해 7년(47세) : 승문원 부제조, 閔馨男의 부사로 서행.

광해 8년(48세) : 형조판서.

광해 9년(49세) : 좌참찬, 慶運宮投矢事件을 저지름.

광해 10년(50세) : 南大門 掛書事件을 저지름. 사형.

이상과 같은 그의 생애에서 주목되는 것은 잦은 파직과 재등용, 그리고 종국에는 대역죄인으로 몰려 사형을 당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문인으로서는 물론, 정치가라고 하더라도 흔히 볼 수 있는 생애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를 시대의 혁명가로 보거나 또는 그와는 정반대로 경표무검한 인물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 1. 否定的 모습

그러면 그가 부정적인 인물로서 부각되는 사건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하자.

그를 부정적인 인물로 평가하는 데 자주 거론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모친의 상중에 창기를 끼고 놀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목민관으로서 무뢰배들과 어울

리는가 하면 전시대독관의 위치를 이용하여 자기의 친족을 부정합격시켰다는 비난을 받았으며 참선 배불했다는 탄핵을 받기도 했다.

이와 같은 비난은 당쟁이 심하던 시절에 사형을 당하고 신원이 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평범한 문인이나 민간인이 아니라, 목민관이며 유교적 도덕교육을 받은 사대부 집안의 출신임을 고려할 때 아무래도 모면할 길이 없다. 만일 그런 행위가 자기의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당대의 다른 문인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은 덧없는 것이라고 포기하고 은둔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환로에 나서는 것만 보아도 그것이 진정한 신념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다.

그러나, 그에 대한 초상화를 작성하는데 후세 사람들까지 당혹하게 만드는 것은 그의 말년의 행적이다.

그는 光海君이 즉위하기 전부터 永昌大君을 옹립하려고 꾀한다. 영창대군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그가 즉위를 하면 仁穆大妃가 수렴청정을 하게 될 것이며, 자신은 국가의 원훈으로서 모든 권력을 다 거머쥘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그의 이런 공작은 李爾瞻에 의하여 좌절된다. 그것 때문에 그는 이이첨을 몹시 미워한다. 그러나, 사태가 불리해지자,

"(영창대군의 폐제를 반대하다가 죽은) 柳永慶과 金直哉의 넋이 대가리 큰 뱀이 되어 李爾瞻의 집에 도사리고 있으니 그는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다."[5]

라고 저주를 퍼붓던 이이첨에게 붙어 부동을 하면서 형조참의에 오른 후 臨海君 사건(光海君 원년)을 일으켰고, 예조참의로 있으면서 國舅 金悌男을 죽이는데(光海君 5년) 앞장섰으며, 호조참의와 형조정랑에 있으면서 永昌大君 폐제(光海君 6년)와 綾昌君 사건(光海君 7년)을 일으켰고, 좌참찬 때는 大妃廢黜

5) 〈朝鮮王朝實錄〉 光海 9年 12月 己卯條, "…李爾瞻之家有蛇大頭 而永慶直哉之鬼云 不久必敗……."

(광해군 10년)을 주도하여 광해군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정치도의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에 속한다. 그런데 그의 초상을 더럽히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하는 사건은 東萊銀商 殺害事件과 慶運宮 投矢事件과 南大門 掛書事件 등이다.

이 사건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東萊銀商 殺害事件[6]

평소 그는 徐羊甲, 朴致毅, 朴應犀, 沈友英, 朴宗仁 등과 '竹林七賢'이다 '江邊七友'다 하고 어울리면서 서얼들의 사로를 열어주려고 꾀하다가 실패하자, 광해군 정란을 기화로 李耕俊을 시켜 "참다운 용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가짜 여우가 먼저 운다."[7]는 격문을 짓게 하고, 영창대군을 옹립하려는 거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鳥嶺에서 東萊의 은상을 살해했다.

그러나 朴應犀 등이 체포되자, 허균은 죄를 모면하기 위하여 徐羊甲과 연흥부원군 金悌男이 잠통을 하여 永昌大君을 옹립하려고 하였다고 자기가 평소에 계획했던 사건을 고변하여 金悌男은 사형이 되고, 영창대군은 강화도에 위리안치되었다가 사형된다.

그는 이 사건에서 체포된 서얼들이 자기들을 구출할 것을 기대하고 허균과 연루되었음을 밝히지 않은 채 사형을 당하자, "그들에게 격서를 지어준 것은 나인데, 沈友英이 나를 불지 않고 죽었으니 내 이름은 이제 살았구나!"하고 기뻐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이 사건 후에 이이첨을 따른다.

(2) 慶運宮 投矢事件[8]

광해군 9년 정월 19일에 金胤黃을 시켜, 광해군은 서얼출신이며 살부 살형

6) 〈光海君日記〉 卷1, 〈燃藜室記述〉 卷22, 〈朝野輯要〉 卷15, 〈大東野乘〉 卷40 참조.

7) "……眞龍未起 假狐先鳴……"

8) 〈朝鮮王朝實錄〉 光海 9年 正月 丙戌條, 〈朝野輯要〉 卷15, 〈大東野乘〉 卷43, 〈光海君日記〉 卷3 참조.

한 임금이기 때문에 종실의 錦山君 李誠胤과 龜川君 李眸 등이 폐주할 준비를 갖추었으며, 조정의 柳, 朴, 奇氏 등의 중신들이 본월 28일에 거병할 것이다. 그러니 대비께서는 내응을 하라는 은어를 섞어 쓴 편지를 화살에 꿰어 慶運宮 마당에 던지고 궁인들로 하여금 광해군에게 주어다 바치도록 한다. 그리고는 유생들을 끌어들여 소위 대륜이라는 대비 폐출의 상소를 올리게 한 후, 이 사건에 앞장서는 反間之計를 썼다.

(3) 南大門 掛書事件[9]

광해군 10년 서북방면에 오랑캐의 침입이 있자 조야의 인심이 흉흉해진 틈을 타서 익명으로 급함을 알리는 변서를 올리고, 서적이 이미 압록강을 건넜으며 유구의 병사가 섬 속에 들어갔으니 살기를 바라는 백성들은 어서 피란을 하라고 사람을 시켜 남산에서 밤마다 외치게 하였다. 그리하여 장안의 백성들은 다투어 성을 빠져 나갔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인심이 흉흉해지자 河仁浚을 시켜 하남 대장군이라는 명의로 慶運宮에 투시하였던 괴서와 같은 벽보를 남대문에 붙이는 한편 僧君과 砲手를 동원하여 대역을 범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하수인인 河仁浚이 체포되자 그 죄상이 드러날까 저어하여 이이첨에게 부탁해서 참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번 일만은 무사하게 넘어가지 못했다. 진사 곽영과 奇俊格이 이런 그의 행동을 지적하여 대역의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상소를 올린 것이다. 그리하여 상소를 받은 사헌부는 합계로 국문할 것을 주청하고, 드디어 그는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

그의 생애 가운데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천기들과의 어울림이다. 부안 기생 桂娘이 죽자 만사를 지어 그의 넋을 위로하였고, 경기 기생 洛賓과는 밤을 세워 환음을 하였으며, 모부인의 상중에도 기생들과 놀아났다는 기록 외에도 구기 光山月과의 해후, 棠妓와의 동침 등의 기록이 보인다. 그리고 秋蟾,

9) 〈朝鮮王朝實錄〉 光海 10年 8月 丙寅條, 〈朝野輯要〉, 卷15, 〈光海君日記〉 卷4, 〈大東野乘〉 卷43 참조.

巫玉, 玉梅 등은 첩실로 들어 앉혔다.[10]

물론, 첩실을 들어앉히고 기생과 어울린 것은 그에게만 국한된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대부들로서는 드러내놓고 할만한 일은 아니었다. 당시의 사회는 유교적 도덕이 중심이 되었고, 따라서 사대부가 색을 탐하는 것을 자랑할 만한 일은 못되었다. 더욱이 상중에는 자기 부인과 자식을 잉태해도 도리가 아니라고 하던 당대에 기생과 함께 어울린 점이라든가, 국가의 관리로서 기생의 죽음에 만사를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녀의 情欲은 하늘이 준 것이고, 倫紀의 분별은 성인의 가르침이다. 하늘은 성인보다 더 높은 것이니 성인의 가르치심은 어길지언정 어찌 하늘이 품부해 주신 本性을 어길수 있으리요"[11]라고 당대의 비난에 맞섰다.

이와 같은 그의 평소의 행동을 고려할 때, 그가 자주 파직을 당한 것은 당시의 도덕관으로 보아서는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 2. 肯定的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직을 당한후 바로 복직이 된 것은 그의 뛰어난 문재 덕분이라고 여겨진다. 그것은 그가 재등용되었을 때마다 중국의 사신을 접대하는 원접사나 또는 서행의 사신들 틈에 끼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오늘날 외교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이 당사국의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또 문화와 역사에 능통하여야 하는 것처럼 당대에는 한시를 짓는 능력이 뛰어나야 하며 경전에 밝아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었다.

그런데, 당시의 조정에는 그만한 인물이 드물었던 것 같다. 明使 朱之蕃을 접대하기 위해서 수안군수에서 파직된 그를 임시 등용한 점이라든가, 그를 만난 朱之蕃이 '인간으로서는 능히 당할 자가 없다'고 평가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

10) 具滋均, 〈近代的 知識人 許筠〉, 人物韓國史 3, 博英社, 1965.
金鎭世, 〈許均研究〉, 서울대 國文學研究 2輯, 1965. 참조.

11) 安鼎福, 〈順庵集〉 권17, 장 11, 〈天學問答〉 참조.

허균의 문재가 뛰어났다는 증거는 이런 외교관으로서의 등용만이 아니다. 그의 중형이 쓴 〈荷谷集〉[12]을 비롯하여, 〈於于野談〉[13], 〈燃藜室記述〉〈西浦漫筆〉[14], 〈燕巖集〉[15]등에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와는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섰던 申欽까지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의 문집 〈惺所覆瓿藁〉를 보아도 잘 드러난다. 이 문집에는 그의 시적 재능을 드러내는 '惺叟詩話' 이외에도 '嚴處士傳', '蓀谷山人傳' '張山人傳', '南宮先生傳', '蔣生傳' 등의 전기가 있고, '豪民論', '兵論', '厚祿論', '學論', 遺才論', '治農' 등 치세의 경륜을 담은 논설이 있다. 이것은 그만큼 그의 문학적 폭뿐만 아니라 학문적 영역도 넓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초상화를 그리는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한가지 긍정적 요소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의 정치적 행적과는 정반대되는 것으로써, 늘 불우한 문인들과 교류를 했다는 점이다.

그의 처음'前五子'라고 하여 권필, 이안눌, 조위한, 허조, 이재영 등과 친교를 맺는다. 그리고 다시 '後五子'라고 하고 정응운, 조희술, 조찬한, 기윤헌, 임숙 등과도 어울린다. 그뿐이 아니다. 서류 출신이어서 벼슬길이 막힌 박응서, 서양갑 등과는 '죽림칠현'이라 칭하고 같이 어울렸으며, 어미니가 천류라 하여 당대의 최고 문인이면서도 유리 걸식하던 李達을 스승으로 받들고, 그가 죽자 '蓀谷山人傳'을 지어 그의 넋을 위로했다. 일생을 벼슬과 관계되지 않은 사적인 친교에서는 언제나 서류나 불우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그의 행적은 벼슬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그에게서

12) 許篈, 〈荷谷集〉, "十五歲兒童 筆鋒凜凜 排霜戟揚 字畫猊狄".

13) 柳夢寅, 〈於于野談〉(萬宗齋本, p. 42), "許筠聰明英發 生九歲能作詩甚佳諸長者稱譽之曰 此兒他日當作文章士".

14) 金萬重, 〈西浦集〉, (通文館本 p. 623), 西浦漫筆, "澤堂與子弟 言每稱 許筠爲知詩".

15) 朴趾源, 〈燕巖集〉 卷14, "筬篈筠兄弟三人俱以文鳴 女弟景樊才名復厥兄之右 九邊諸國最爲傑出者"

는 상충되는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당대의 관료라고 한다면, 이런 불평 불만이 가득한 무리들과 어울리는 것이 오히려 자기의 벼슬길에 방해가 됨은 그 자신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초상화를 그리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이 이외에도 몇 가지를 더 고려해야 한다. 강릉에 머물렀을 때 도연명, 이태백, 소동파를 흠모하여 李楨으로 하여금 초상화를 그리게 하고 자신까지 포함하여 '四友'라 부르고 아침 저녁으로 분향을 하였다는 점[16]이라든가, 불교에 침잠하였다가 노장에 빠진 점 등이 그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료들을 종합해 볼 때, 그의 문학적인 업적을 제외한다면 우리는 그에게서 상반되는 두 가지 얼굴을 발견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자기의 정치적 지위 향상과 보명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反間之人型'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불우한 사람들을 동정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따뜻한 人間型'이다.

물론, 그는 당쟁에 휘말려 사형을 당한 사람이다. 그리고 신원이 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의 두 개의 초상 가운데에 어느 것이 참다운 것인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의 문학적 재능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중지하고 사료에 나타난 행적만 가지고 말한다면 결코 바람직한 인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그의 문학과 함께 연관을 지었을 때는 풀릴 수 없는 수수께끼로 등장한다. 그처럼 반간지계를 구사하던 소인배가 '平等'과 '義理'를 주제로 한 소설이나 제론을 쓸 수 있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수수께끼는 그의 가정구조와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가령, 그가 서류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가졌다거나, 그들을 대상으로 한 小說이나 傳記를 비롯하여 인재의 등용은 신분을 따져지 말아야 한다는 "遺才論"을 쓴 점에 대한 수수께끼만 해도 그렇다.

16) 〈惺所覆瓿藁〉 卷6, 文部 3, 〈四友齋記〉 참조.

## Ⅲ. 〈洪吉童傳〉 및 기타 作品에 나타난 두 개의 肖像

소설은 작가의 상상적인 허구의 산물이다. 그러나, 이런 허구는 아무렇게나 짜여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현실을 소재로 이루어지며, 작가의 체험을 밑바탕으로 한다. 이런 입장에서 〈洪吉童傳〉을 분석할 때, 우리는 작품에서 또 다른 허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洪吉童의 모습과 許筠의 모습이 일치하는 점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1) 許筠의 家系와 吉童의 家系가 비슷하다.

작가나 주인공 모두가 명망이 높은 관서급 이상의 고관대작의 자제들이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길동은 庶子로 설정되었고, 허균은 後娶 所生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그것은 소설 구성상의 필연적인 요구 때문일런지도 모른다. 〈洪吉童傳〉의 주제가 인간은 그 출신 계층에 따른 응분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니고 있는 능력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있다고 할 때, 주인공을 천류로 설정한 것은 오히려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길동을 몰락한 양반이거나 사회적 계약으로 인해 신분을 숨기는 사람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설정은 천류로 설정할 때보다는 주제의 심각성을 훨씬 감소시킨다. 능력있는 자가 사회제도에 의하여 그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할 때, 주인공은 이에 대해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갈등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주제는 뚜렷하게 부각되어 독자의 공감을 살 수 있다. 따라서 소설미학상으로 볼 때 그를 천류로 설정한 것은 당연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에게 있어서 단순히 소설 구성의 필요에 의한 것만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그는 〈洪吉童傳〉 이에외도 '嚴處士傳', '蓀谷山人傳', '張山人傳', '南宮先生傳' 등의 작품에서 신분에 얽매여 능력에 비하여 부당

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

그는 사회적인 장벽 때문에 발휘할 수 없는 탁월한 재능을 지닌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자아와 세계는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을 보여주고 있으며[17], 그러한 사람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으로 자기 사명을 삼았다.

이러한 점은 〈洪吉童傳〉의 구성을 살펴보아도 잘 드러난다. 작품의 구성이, '(가)高貴한 혈통을 지니고 태어났다. (나) 非正常的으로 孕胎되었거나 出生했다. (다)凡人과는 다른 卓越한 能力을 타고 났다. (라)어려서 棄兒가 되어 죽을 고비에 이르렀다. (마)救出, 養育者를 만나서 죽을 고비에서 벗어났다. (바)자라서 다시 危機에 부딪혔다. (사)危機를 투쟁으로 극복해서 勝利者가 되었다.'[18]는 韓國의 英雄의 一代記 小說 구성과 일치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英雄小說類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갖는다.

그리고, '遺才論'에서는 유능한 인재를 얻기 위해서는 투항해 온 적장이나 도적은 물론 서류 천민까지도 등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洪吉童傳〉에서 길동을 서류로 설정한 것은 소설 미학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의 사상의 일단을 보여준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왜 이런 신분을 설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제로 삼았을까 하는 질문에 부딪히게 된다.

그것은 다시 두 가지 방향으로 추론이 가능하다. 그 하나는 당시의 사회 사상의 변천을 들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그의 무의식 속에는 자신을 서류로 보는 잠재의식이 도사리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방향이다.

임진왜란 이후 우리나라는 극심한 사회 재편성이 이루어진다. 왜적의 분탕질로 노비 문서가 불살라지고, 주인의 죽음에 따라서 먼 지방으로 떠난 노비

17) 趙東一, 〈小說의 成立과 初期小說의 類型的 特徵〉, 韓國 小說의 理論, 지식산업사, 1977. pp. 245~261

18) 趙東一, 〈英雄小說 作品構造의 時代的 性格〉, 韓國 小說의 理論, 지식산업사, 1977. p. 288.

들이 자기 신분을 숨기고 평민이나 양반으로 행세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주인을 따라서 싸운 노비들이 그 댓가로 속천하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로 신분의 혼란이 일어난다.

뿐만 아니라 양반제도가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가도 드러난다. 평소에 군림하였던 양반들은 전쟁이 일어나자 자기들의 보신에 급급하였지만, 실제로 저들과 마주 싸운 사람은 평민이거나 노비들이었으며, 그들의 의식 속에는 양반도 그리 대수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사상이 싹트기 시작한다. 그것은 근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새로운 자아에 대한 자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신분의 혼란과 평민들의 자각으로 인해 무의미한 신분구별에 대한 저항이 사회에 만연하게 되며, 그것이 〈洪吉童傳〉 속에 그런 설정을 가져 왔다고 볼 수도 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그의 가정 구조에서 온 체험이 그런 무의식을 형성했고, 이것이 작품 속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와 같은 추론은 개연성에 불과한 것일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자 형제간에도 잘 어울리지 않았다'[19]라는 기록은 '呼父 呼兄을 하지 못하고'와 대응이 되는가 하면, 아버지가 먼저 죽고, 어머니만 율도국으로 모시고 가는 점 등은 너무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2) 吉童이나 許筠 모두가 超人的 能力을 지닌 人物이라는 점이다.

길동은 8세부터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고, 스승도 없이 무술과 병법까지 익힌다. 그리하여, 자기를 죽이려던 자객을 거꾸로 죽일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뛰어난 재능은 허균에게서도 발견된다. 그가 무술에 뛰어났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지만, 9세에 이미 시문에 뛰어나 주위 어른들을 놀라게 하는가 하면, 후의 저술이기는 하지만, '兵論', '正論', '厚祿論', '學論', '遺才論', '治農', '西邊備虜考' 등에서 어떤 정치가나 군주보다도 뛰

19)〈惺所覆瓿藁〉 卷9, 文部 6, '與李大中第一書', p. 112.

어난 식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길동과 같은 뛰어난 도술을 지니고 있지는 못할 망정 실제의 인물이 지닐 수 있는 모든 재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설 속의 吉童은 許筠의 또 다른 分身이라고 할 수 있다.

(3) 許筠이나 吉童 모두가 上昇指向的 人物이라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길동의 신분은 조정의 중용 대상과는 거리가 먼 천생이었다. 그러나, 그는 병조판서를 제수받고도 만족을 하지 못하고 율도국 왕이 되는가 하면, 율도국으로 떠나기 전 군량미를 얻기 위하여 왕을 만날 때는 공중에서 내려 오기도 하고, 비록 설화의 세계에서의 대결일망정 망탕산에서 왕과 한판 승부를 겨룬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무덤을 꾸미고, '이곳은 조선 사람이 출입하는 곳이 아니'라고 금기를 하였으며, 율도국의 위치를 조선도 섬기지 않고 중국도 섬기지 않는 독립적인 위치로 설정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신하는 물론, 임금도 상상할 수 없는 설정이다. 그런데, 이런 절대 자주, 절대 자아를 실현하려는 꿈은 그의 생애 속에서도 나타난다. 처음에는 영창대군을 옹립하여 절대 권력을 잡으려고 꾀하다가 그것이 불가능해지자 광해군 쪽에 서고, 광해군 편에 서서도 자기의 생각이 관철되지 않자 모반을 도모한 점 등이 그런 단서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명문 유가에 태어나 어려서부터 유교 교육을 받았으면서도 불교와 도교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또 그것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다시 방황하는 것은 어떤 계율이나 제도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절대 자아만이 인정이 되는 세계로 비상하려는 몸부림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 Ⅳ. 許筠과 洪吉童의 距離

그런데, 이와 같이 吉童과 許筠이 여러 측면에서 일치한다고 할 때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그것은 왜 소설 속의 許筠(吉童)은 독자의 지지를 받으면서

도 실제의 許筠은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몇가지 단순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의문에 불과하다.

그 첫째로는 소설 속의 선악과 현실의 선악은 동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흔히 소설 속의 선악을 현실의 선악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현실 속에서는 〈A〉라는 방향을 선이라고 인정하던 사람도 작품 속에서는 정반대인 〈B〉라는 방향의 행동을 선이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그것은 악한을 주인공으로 삼은 피카레스크식 소설을 보아도 잘 드러난다. 이런 소설에서 설정된 주인공은 사회통념상으로 분명히 악한에 속한다. 하지만, 독자들은 주인공의 행동을 가로막는 상대(실제에 있어서는 선)를 오히려 증오하고 악의 승리를 바란다. 그것은 독자들이 소설이라는 스크린을 통하여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비판하기 때문이다.

〈洪吉童傳〉도 마찬가지다. 吉童은 당시의 법으로 따지면 조정을 우롱하고 왕명을 거역한 대역 죄인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독자들이 그를 지지하고 갈채를 보내는 것은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란다기 보다는 오히려 비현실이라는 입장에서 즐기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가에게는 이런 보호 공간이 없음을 우리는 자주 잊는 경우가 있다. 특히 작품이 훌륭한 반면에 작가의 인간적 행적이 그리 바람직하지 못할 때는 더욱 더 이런 점을 잊고 있다.

또 하나는 작가가 제시한 이상의 세계나 가치관이 곧 작가의 인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점이다.

작가가 작품을 쓰는 행위는 자기가 이상적이고 생각하는 세계를 제시하기 위해서다. 허균도 이점에서는 마찬가지였다. 아니, 그는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이상을 추구했을런지도 모른다.

그것은 신분을 초월하여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는 '遺才論'을 비롯하여, 백성은 恒民, 怨民, 豪民으로 나눌 수 있고, 국정이 문란해지고 탐관오리가 들끓게 되면 호시탐탐 때를 노리던 豪民이 들고 일어서며 그 뒤를 따라서 怨民

과 恒民이 함께 일어나 드디어 사회개혁의 꿈이 성취된다고 하는 '豪民論' 이라든지, 관리들이 부정을 저지르지 않도록 祿을 많이 주어야 한다는 '厚祿論', 국방과 정치의 이론을 담은 '兵論', '正論' 등[20]은 당대는 물론 오늘에도 귀담아 들을만한 혁신적이고 이상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세째로는 작품에 작가의 모습이 逆投射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흔히 작품 속에 나타난 주인공을 작가의 모습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작품이 그의 체험을 바팅으로 쓰여진다는 논리를 잘못 해석한 데서 오는 맹신이다.

그러나, 정반대인 경우도 있다. 그것은 작가의 이상이 드높음에 비하여 그의 현실이 비참할 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상황에 빠지면, 나는 왜 이상을 실천하지 못하였는가 하는 자책에 빠지기 쉽고, 이 때는 그것이 무의식 속에 빠져 자책과 회의가 일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런 자책과 회의는 해소될 계제를 찾는다.

그런데 이 때에 역투사 현상이 일어나기 쉽다. 가령, 가난한 사람이 돈을 벌고 싶어하는 강렬한 욕구를 지니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상상으로서 부자가 되어보는 심리와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허균에게 있어서도 〈洪吉童傳〉은 현실적인 자아를 역투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그것을 행동으로서 개혁하여야 한다고 그 자신도 그렇게 믿었을테지만, 오히려 가장 비열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작품 속에서나마 현실적인 자아와 또 하나의 자아를 역투사시켜 자기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자신도 모르는 또 하나의 자아가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자아로 하여금 실수를 하게 해서 자신이 지향하고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순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융(Jung)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그림자 Shadow'[21]라고 부른다. 자아의 어두운 면, 즉 무의식적인 측면에 있는 자아의 분신이 바로 '그림자'인 것이다. 자아가 선한 것을 주장하면 할수

20) 〈惺所覆部藁〉 卷11, 文部 8. 참조.

21) 李符永, 〈分析心理學〉, 一潮閣, 1984. pp. 55~64.

록 악한 것(그림자)이 그 뒤에서 짙게 도사리게 되며 선한 의지를 뚫고 나올 때 자아는 느닷없이 악한 충동의 제물이 됨으로써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그림자의 투사는 자아가 하는 것이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되는 것이어서 자아는 단지 투사된 대상에 감정적으로 집착하게 됨으로써 어떤 무의식적인 내용이 투사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혀 그런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무의식적인 그림자가 투사될 때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게', '공연히' 어떤 대상에 대하여 혐오감이나 그 밖의 부정적인 감정반응을 일으킨다.

허균의 경우도 무의식적인 그림자가 현실적 자아에 투사되면서 사료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허균 자신의 개인적인 그림자가 현실에 투영된 사회의 집단적 그림자와 닮은꼴을 형성하면서 무의식 속에 있는 부정적인 그림자가 현실 속에 투사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洪吉童傳〉은 그러한 자신의 부정적인 현실적 자아를 발견하고 작품에 나타난 길동과 같은 모습에 도달하고 싶다는 욕망에서 비롯된 역투사의 소산이라고 본다.

## V. 結　　語

筆者는 이제까지 〈朝鮮王朝實錄〉, 〈燃藜室記述〉, 〈於于野談〉, 〈大東野乘〉, 〈朝野輯要〉 등의 사료에서 얻어지는 허균의 초상과 〈洪吉童傳〉과 문집 〈惺所覆瓿藁〉에 수록된 '嚴處士傳', '張山人傳', '蓀谷山人傳', '南宮先生傳' 등에서 발견되는 초상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하고, 왜 그러한 차이점이 나타나는가를 밝히고, 그것이 왜 그렇게 작품 속에 굴절되어 표현되었는가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人物設定 : 허균 자신은 후처 소생이기는 하지만, 귀족 자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洪吉童傳〉 및 기타 '傳' 류의 작품에서 불우한 문인이나 서류

들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소설 미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능력있는 자가 자기의 잘못이 아닌 요소로 좌절될 때는 갈등을 수반하며, 이는 주제의 심각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주인공을 천류로 설정한 것은 당연한 태도이다. 또한 그의 가정 구조에서 오는 체험으로 해서 무의식 속에 자신을 서류로 보는 잠재의식이 도사리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2) 能力 : 許筠과 吉童 둘 다 超人的인 能力의 所有者이다. 길동은 8세부터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고 스승도 없이 무술과 병법까지 익혀, 자기를 죽이려던 자객을 거꾸로 죽일 수 있는 경지에까지 도달한다. 허균도 마찬가지다. 그가 도술에 뛰어났다는 기록은 없을 망정, 9세에 이미 시문을 통달하였으며, 정치나 학문에 관한 논설에는 어떤 정치가나 학자보다도 뛰어난 식견을 보이고 있다. 이는 〈洪吉童傳〉이 허구적 인물을 그린 것이 아니라 실제적 인물, 즉 許筠 自身을 投射한 것이라는 증거이다.

3) 人物의 性格 : 둘 다 上昇指向的인 人物이다. 吉童은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병조판서를 제수받고, 거기에도 만족하지 못하여 율도국으로 가서 왕이 되고 그 위치 또한 中國도 朝鮮도 섬기지 않는 독립된 위치로 설정한다. 허균 또한 처음에는 영창대군을 옹립하여 절대권력을 잡으려고 하다가, 그것이 좌절되자 광해군 쪽에 서고, 광해군 편에 서서도 자기 꿈이 이루어지지 않자 또다시 모반을 꿈꾼다. 이로써 보면 〈洪吉童傳〉은 許筠 자신의 욕망을 투사한 것이다.

4) 吉童은 활빈당을 결성하여 관아를 습격하고 탐관오리가 부정으로 빼앗은 재물들을 탈취하여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며,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병조판서를 제수받는다. 이는 '豪民論', '遺才論', '厚祿論', '兵論', '正論', '學論' 등의 제논설에서 주장한 그의 思想의 일단이 〈洪吉童傳〉에 投影된 것이라는 증거이다.

5) 吉童은 현실에서 주어진 모든 제약을 극복하고 국외로 나아가 율도국을 건설한다. 하지만, 許筠은 끊임없이 환로를 추구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잘못이나 외부의 세력에 의하여 그러한 꿈이 좌절된다. 이를 C. G. Jung의 '그림자 Shadow' 이론과 문예미학의 일반 창작 심리로 볼 때, 〈洪吉童傳〉은 작자가

자신의 부정적인 個人的 그림자와 現實的 自我를 발견하고, 작품에서와 같은 모습에 도달하고 싶다는 욕망에서 비롯된 자기 자신의 逆投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6) 그의 생애에서 자주 발견되는 否定的인 肖像은 그 자신의 개인적인 그림자가 현실에 투영된 사회의 集團的 그림자와 닮은 꼴을 형성하면서 無意識 속에 있는 否定的인 그림자가 현실 속에 投射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창기들과의 어울림이나 무뢰배들과 사귄 점은 인간 본연의 심성을 추구하는 자유분방한 그의 사상의 일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작가를 연구할 때는 작품과 작가의 생애를 모두 엄밀하게 분석하되, 그것이 지니고 있는 表面的인 모습만 집착하지 말고, 거기서 발견되는 차이는 무엇이며, 왜 그와 같은 차이가 발생되었는가를 心理的인 分析을 거쳐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느 한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태도도 지양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 參 考 文 獻

1. 資　　料

〈大東野乘〉

朴趾源, 〈燕巖集〉

安鼎福, 〈順庵集〉

柳夢寅, 〈於于野談〉

李肯翊, 〈燃藜室記述〉

〈朝鮮王朝實錄〉

〈朝野輯要〉

許　筠, 〈惺所覆瓿藁〉

2. 論文 및 單行本

金台俊, 增補 朝鮮小說史, 學藝社, 1939.

朴晟義, 韓國 古代小說史, 日新社, 1964.

朴喆熙·金時泰, 文學의 理論과 方法, 二友出版社, 1984.

申東旭, 文藝批評論, 고려원, 1984.

申東旭 編, 許筠의 문학과 혁신사상, 새문社, 1981.

李能雨, 古小說研究, 宣明文化社, 1973.

李秉岐, 國文學全史, 新丘文化社, 1957.

李符永, 分析心理學－C. G. Jung의 人間心性論, 一潮閣, 1984.

李善榮, 文學批評의 方法과 實際, 東泉社, 1983.

이이화, 허균의 생각－그 개혁과 저항의 이론, 뿌리깊은 나무, 1981.

鄭鉒東, 洪吉童傳研究, 文豪社, 1961.

鄭鉒東, 許筠--洪吉童傳의 反抗, 韓國의 人間像5, 新丘文化社, 1965.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1985.

趙東一, 韓國小說의 理論, 지식산업사, 1985.

조동일, 許筠, 韓國文學思想史試論, 지식산업사, 1978.

車熔柱, 許筠論再攷, 아세아연구 48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2.

허경진, 허균－"나는 나름대로 내 삶을 이루겠노라", 평민사, 1984.

權純肯, 〈洪吉童傳〉의 수용양상과 시대적 의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83.

金東旭, 許筠과 女性, 아세아여성연구 6집, 1968.

金鎭世, 許筠研究, 國文學研究 2輯, 서울대 국문학연구회, 1965.

金鎭世, 洪吉童傳 作者攷, 서울대 교양과정부 논문집 1집, 1969.

3. 國外論著

C. G. Jung(설영환 역), 무의식 분석, 선영사, 1986.

M. H. Abrams, Orientation of Critical Theories, The Mirror and The Lamp,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1953.

S. N. Grebstein, Introduction, Perspectives in Contemporary Criticism, 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s, 1968.

John Stuart Mill, Early Essays, ed. J. W. M. Gibbs, London, 1897.